

# 2020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0.03.10. (화) 15:00~15:4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3명 중 12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주창윤(의장), 성혜경, 조정환, 이도희, 송미경
  - 나. 직원대표 : 이계원, 김홍석
  - 다. 학생대표 : 신동인
  - 라. 동 문 : 최형심, 박희옥
  - 마. 외 부 : 장유식(부의장), 손인웅
4. 불참자 : 황선진(학생대표)
5. 자문안건
  - 가.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
6. 심의안건
  - 가.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 나. 대학원 학칙 개정(안)
  - 다.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라. 2021학년도 첨단학과 신설 신청(안)

## 1. 대학평의위원회 신임 학생 평의원 소개

○ 학생 평의원 : 신동인 대학원 원우회장 (임기 : 2020.03.01.~2021.02.28.)

## 2. 자문 안건

### 2-1.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

경영기획팀장이 체육학과의 학과명을 스포츠운동과학과로 변경하는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제·개정 사유의 학과 명칭 변경 사유가 신임교원 충원인 것은 아니라 학과의 변화에 따라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교원을 충원하는 것이므로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개정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가.
- 체육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라 자문·심의하는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및 학칙, 대학원 학칙 개정(안)의 제·개정 사유를 학과의 학사구조 개편 및 발전계획에 따른 학과명

변경으로 수정하도록 한다.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의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해야 하므로 법인 이사회 안건 상정 시에도 수정한 제·개정 사유를 반영하도록 한다.

○ 체육학과 교수와 학생은 좋다고 생각한 것인가.

－ 학과 명칭 변경은 체육학과에서 결정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 입시 경쟁률과 관련하여 학과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학과 내용의 변경 없이 명칭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던 차에 신임 교원 충원에 따른 학과의 변화 및 현 트렌드를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한다.

### 3. 심의 안건

#### 3-1.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체육학과의 학과명을 스포츠운동과학과로 변경하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 3-2. 대학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체육학과의 학과명을 스포츠운동과학과로 변경하는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 3-3. 개방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경영기획팀장이 개방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학평의위원회의 추천 위원 선출에 대하여 설명하다.

○ 2020학년도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언론영상학부 주창윤 교수)과 부의장(법무법인 동서남북 장유식 변호사)을 선출하다.

#### 3-4. 2021학년도 첨단학과 신설 신청(안)

기획처장이 2021학년도 첨단학과 신설 신청(안)을 설명하다.

○ 학과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시,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을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입학정원 40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 조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데이터과학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경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와 정원 조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 과정에 있어 총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미래산업융합대학 학생회장,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장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디지털미디어학과와 경우, 입학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학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과 내에서도 현재의 디지털미디어학과가 과거의 2개 학과가 통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정보보호학과와 경우, 학생들의 의견 수렴 결과, 정보보호학과가 타과 학생들이 복수전공으로 많이 선택하는 전공의 특성이 있어 입학정원을 크게 웃도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속 학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최근에 학과 교원이 일부 퇴직하였으므로 학과에 정원 조정 검토를 요청하여 조정하였다. 자율전공학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나머지 18명의 입학정원에 대하여 각각 50%씩 조정하는 안을 계획하였으나,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의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감축하는 것은 입시전형 설계 시 최소 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장도 자연계열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운영의 어려움을 우려하였다. 이에 교무위원회에서 기존의 데이터과학 연계융합전공이 사회계열과 IT계열로 운영되었고, IT계열에서 입학정원 22명을 조정했으니, 나머지 입학정원 18명은 최종적으로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에서 조정하는 안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대표적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은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결손 인원을 활용한 학과 신설의 취지 및 효과의 극대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2025년까지 결손인원을 활용하더라도, 이후에도 입학정원의 결손인원이 계속 발생하여 유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학교는 향후에도 학과 신설 등의 방식으로 입학정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가.

- 그렇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신설한 이후에도 중도탈락률이 현재 발생하는 만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학과 신설 없이 연간 결손 인원 중 45%를 편입학만으로 충원하는 것보다 학과 신설을 통해 결손 인원의 45%를 편입학으로 충원하고 동시에 신설 학과 정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총 결손 인원을 일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올해가 교육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1차년도이고, 교육부가 이 제도를 유지하여 매년 신청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연계융합전공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는 경우에

는 학과 신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의장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학생평의원이 사전에 전달한 의견을 전달하다.
-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학과의 신설에 따라 실습실 보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문·이과 통합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하여 수학, 프로그래밍 등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 4.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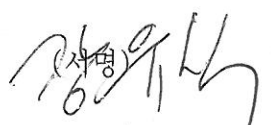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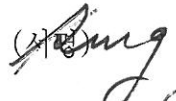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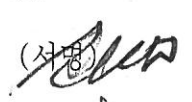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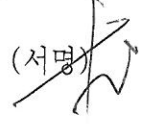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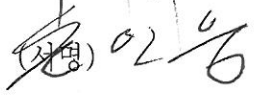
- 회의록 공개 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화자 공개를 제안하다.
  - 기존의 회의록 공개 방식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중에 발화자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발화자를 공개할 수 있으나, 평의원회 회의는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절차이므로 발화자의 공개 없이 현재 방식으로 진행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의장이 2020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 5.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2019학년도 결산 자문을 위하여 3월 말 ~ 4월 초 경에 회의소집을 요청 드릴 예정이다.

의장이 15시 4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3월 10일

|       |       |                                                                                            |
|-------|-------|--------------------------------------------------------------------------------------------|
| 의 장   | 주 창 윤 | (서명)    |
| 부 의 장 | 장 유 식 | (서명)    |
| 평 의 원 | 성 혜 경 | (서명)    |
| 평 의 원 | 조 정 환 | (서명)    |
| 평 의 원 | 이 도 희 | (서명)    |
| 평 의 원 | 송 미 경 | (서명)    |
| 평 의 원 | 이 계 원 | (서명)    |
| 평 의 원 | 김 홍 석 | (서명)   |
| 평 의 원 | 신 동 인 | (서명)  |
| 평 의 원 | 최 형 심 | (서명)  |
| 평 의 원 | 박 희 옥 | (서명)  |
| 평 의 원 | 손 인 응 | (서명)  |
| 간 사   | 하 성 호 | (서명)  |